

세계화를 위한 공작기계 역할

김 일 규*

공작기계란 제조업전반에 걸쳐 생산기술을 높여주는 기본적인 자본재산업으로 기계는 물론 부품생산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핵산업으로 선진화, 세계화를 위하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제일 먼저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연적 해결과제로서 국가간에는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있는 현실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안정적 공급체제로 물량 확보가 어렵고, 다품종 소량생산업체로 경제규모기대가 타업종에 불리하며, 기간산업과 직접적인 연계로 국가간 기술분업체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로 자국의 기술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공작기계산업이 세계속의 위치를 보면 1993년 생산실적기준으로 1위는 일본으로부터 2위 독일, 미국, 이태리 순으로 한국은 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은 미국, 중국, 독일, 다음인 4위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까지도 수입과대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며, 핵심품 및 주요기술 또한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리의 입장이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생산증가는 하였으나 아직도 내수의 절반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본재산업의 기둥이 되는 우리 공작기계류의 제조원가 구성비를 보면 핵심부품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현실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떨어지고 있어 장기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환경은 벌써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간의 무한경쟁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및 지적소유권의 테두리 영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지역별 국제표준화의 품질인증이 유럽, 북미등에서 시행됨에 따라 점차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우리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작기계산업이 대처해야 할 과제라면

- 핵심부품의 독자기반기술 구축
- 주요국가와 산업협력 강화
- 국제 규격 인증에 적극적 대처
- 미래 수요기종의 선행적 연구
- 수입의존이 높은 기종의 국산개발 유도

등의 내용들에 적극적이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공작기계산업이 국내외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등의 주요산업 활황에 힘입어 급성장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외 또한 유럽지역의 경우 통독이후 무너져 버린 유럽공작기계업체들의 생산능력 저하와 엔고상승에 따라 상대적인 경쟁력 발생등으로 사상 최고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본재산업의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표명한 바 이 우리 공작기계업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점차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얼마전 공작기계협회에서는 장기발전전망을 향후 10년 후인 2005년에는 세계에서 3~4위 생산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흑자전환이 가능하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져 세계 4~5위의 수출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앞서 몇가지 나열한 해결방안이 시기적절하게 대처되어진다면 세계 제1의 국제경쟁력 확보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어 우리 공작기계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희망적인 비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발전적 여건마련에 우리업체는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화 추세에 편승할 수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이사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산, 학, 연 협동은 물론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활용도 잘 이용하여 공작기계산업의 장기

적 발전이 국가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접수순)

하드 및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한국네티컴(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993-14(죽춘빌딩 2층)

대표 정찬웅

전화 : 02)848-0700 FAX : 848-0703

교육용 공작기계 제작업체

중앙정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3-15(세움빌딩 2)

대표 이병호

전화 : 02)562-4901~5 FAX : 556-8955~6

공작기계 제작업체

화천기계공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2-7

대표 권영렬

전화 : 02)523-7766 FAX : 523-2867

공작기계 제작업체

현대정공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대표 유철진

전화 : 02)746-3951 FAX : 746-4244

수치제어 장치 제작업체

한국화낙(주)

경상남도 창원시 웅남동 42번지

대표 김병원

전화 : 02)528-4713 FAX : 0551)84-9826

공작기계 제작업체

대우중공업(주)

서울 중구 남대문5가 541(대우센타 20층)

대표 석진철

전화 : 02)726-3200~6 FAX : 726-3274

공작기계 제작업체

두산기계(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7

대표 정재식

전화 : 02)540-4848 FAX : 549-2150

공작기계 제작업체

대구중공업(주)

대구광역시 서구 종리동 1156

대표 여인영

전화 : 053)556-2091~8 FAX : 556-2096